

원 구성 협상, 관건은 법사위·예결위

여야, 기한내 원 구성 마무리 공감대... 오늘 원내대표 회동 핵심 상임위원장직·3차 추경 등 이견... 지연 가능성 여전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오는 30일)을 앞두고 법정시한 내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들이 1년 6개월만에 회동을 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목소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 여야 합의 속에서 원만한 원 구성이 이뤄질지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여야 갈등도 여전히 원 구성 법정시한인 6월 8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원만한 21대 국회 원 구성을 촉구했다. 이혜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는 30일은 21대 국회의 임기 시작일이다. 협상에서 할 것이 있고, 국회 규정에 따라 할 게 있기 때문

에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 규정은 규정대로 따르고, 또 정부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는 21대 국회가 되도록 원내대표단에서 협상과 국회 규정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속도감 있는 원 구성이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 이후에 1년 6개월만이다. 20대 국회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1차 회의를 끝으로 더 이상 가동 되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절박한 상황에 응답하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기대감이 나타났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추경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논의를 할 예정이며, 일하는 국회의 초석은 신속 원 구성이다.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는 데는 추경 원내대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 본다. 원 구성 협상도 신속하게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통합당 추경 원내대표는 공보실을 통해 "이번 3차 오찬 회동을 통해 여야정 협의와 포스트 코로나 등 당면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예산 등 일부 현안을 놓고는 이견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초점을 맞췄고, 통합당은 3차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등을 감안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방침을 짰다.

무엇보다도 여야가 핵심 상임위원회 위원장직과 국회 개선안 등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해 협상 지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

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여야의 힘겨루기도 팽팽하다. 민주당은 효율적 법률 처리와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들 위원장직을 맡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통합당은 행정부에 대한 야당의 견제권을 내걸고 맞서고 있다.

실제,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박광온 최고위원은 여야가 상임위원장을 의석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과 관련 "199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의 의석구도가 생겼기 때문에 당시 여당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야당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안배했던 것이 그 시작이었다"면서 "지금 과거 체제를 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명령은 '야당의 견제나 감시 역할'보다는 '야당의 진정한 국정협조'를 분명히 명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1대 국회 1호 법안은 '일하는 국회법'"

민주당 첫 전체회의... 통합당 겨냥 원구성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일하는 국회'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일하는 국회 추진단'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법'을 여야 공동으로 발의하고, 이를 21대 국회 1호 통과 법안으로 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로 내놓았다.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21대 원내 구성 등을 놓고 야당을 겨냥한 민주당의 압박 카드로 '일하는 국회'가 강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통과되는 법은 일하는 국회법이 돼야 한다"며 "저와 미래통합당 추경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발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장인 한경애 의원은 "일하는 국회가 되는 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라며 "여야 의원들 모두 '일

하고 싶다'고 외치고 있으니,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정중숙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법사위 체계·지구 심사권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용천 의원은 "법사위는 당리당략에 따라 하루종일 싸운다. 정말 알 걸릴 듯한 느낌으로 내내 싸웠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2주를 남겨놓고 있다고 언급, "긴박한 상황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제발짜에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의 초석은 신속한 원 구성"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

김종인 비대위 속 무소속 4인방 운명은

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 통합당 복당 비관적 전망

4·15 총선 참패로 표류하던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로 재정비되면서 '무소속 4인방'의 복당 여부도 시선이 옮겨지고 있다.

무소속 4인방은 통합당 공천 탈락 후 무소속으로 총선에 나서 당선된 홍준표·권성동·윤상현·김태호 당선인이다. 총선 승리로 정치적 견해를 과시했으나,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다섯 의원들인 만큼 내심 친정인 통합당으로의 복당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4인방의 복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비대위를 비롯한 당직 인사, 이념·노선 재정립, 잇단 전국 단위 선거 참패로 무너진 조직 재정비, 내년

4월 재보선을 겨냥한 인물 발굴 등 당 재건에 우선순위를 두기 때문이다. 현재 '한 석이 아쉬운' 상황은 아닌 데다, '공천 반발 후 탈당'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소속이 복당시켜야 할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무소속 4인 중 개별적으로 연내 복당을 추진할 것인 말도 나온다. 이 경우 김종인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 뚜렷한 각을 세웠던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복당은 상대적으로 더 늦어질 것인 관측도 있다. 현재 무소속 4인 중 권성동의 원만 복당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홍 전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 윤상현 의원 등은 복당 의지만 밝힌 채 당 지도부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이명박·박근혜 사면 선국기 민주당 "통합에 도움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는 최근 문화상 국회의장이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말하면서 재부상했다. 여기에 미래통합당 추경 원내대표가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끝나야 한다"고 가세한 상태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은 국민통합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며 "한 분은 명백하게 드러난 범죄 행위에 대해 보복이라고 하고, 다른 한 분은 수사 협조조차 안해 사법부 위에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을 말하는 것은 법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나.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사면론은 통합은커녕 편 가르기와 분열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전두환, 노태우처럼 사면 받고 국민과 역사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법제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 전에 법칙이 있는 것"이라며 "판결문을 쓰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면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국회의장 박병석... 헌정사 첫 여성부의장 김상희



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 후보자 선출 당선인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박병석 의원과 부의장 후보자로 선출된 김상희 의원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만장일치 추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선인 총회를 열어 찬반 투표 없이 21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몫 부의장 후보로 박병석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공식 추대됐다. 총회에는 177명 중 130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민주당 의장 경선 후보에 출마 등록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 몫이기 때문에, 이날 추대에

따라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는 촛불 시민혁명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로, 개혁을 통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이 내려졌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해 이미 규정된 국회법을 충실히 지켜왔다"고 했다.

또 '일하는 국회 개혁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서 "한 달에 두 번 열도록 규정된 소위원회 불참자에 대한 제재가 없는데, 보완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일하는 의원

과 그렇지 않은 의원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상희 의원은 "저를 최초의 국회 여성 부의장 후보로 결정된 민주당은 73년 헌정사에 큰 이정표를 세웠다"며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와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응답한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국회는 내달 초 본회의를 열어 표결 절차를 밟아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선관위, 28일 개표 과정 시연

민경욱 부정선거 주장 해소

아편에서 총선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 나오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의혹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 청사에서 언론을 상대로 사전투표 및 개표 과정을 시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는 먼저 투·개표 과정은 물론 서버를 포함한 선관위 통신망의 보안체

계,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사전투표장비, 투표지분류기, 심사계수기 등 장비에 대한 구성과 제원, 작동원리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한 후 실제 시연에 들어갈 계획이다.

사전투표 시연은 지역구 후보 4명, 비례대표 35개 정당, 선거인수 4천명, 투표수 1천명을 가정해 진행된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회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2020학년도 후기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미래 산업발전을
견인해 나갈 고급 인재 양성!

야간과정 운영(주 1~2회, PM 7시~11시)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 정규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 학점미취(30학점)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문제 시행)
-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응·복합 시대에 걸맞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시스템 운영
-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주요일정

구분	일정	비고
입학원서 접수 (인내년 작성)	2020. 5. 25.(월) ~ 6. 19.(금)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구비서류 제출 (우편 및 방문접수)	2020. 5. 25.(월) ~ 6. 19.(금)	공과대학 4호관 2층 산업대학원 행정실
전형일시	2020. 7. 1.(수) 10:00 ~	학과(전공) 지정 장소
합격자 발표	2020. 7. 22.(수) 10:00 예정	산업대학원 홈페이지

모집학과(전공)

건축공학과/기계공학과/산업공학과/재료공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토목공학과/화학공학과/환경에너지공학과/식품공학과/지역환경자원공학과/친환경농업학과/전자컴퓨터공학과(계약학과, 정원외) ※ 학과별 전공은 모집요강(안)참고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 전화 062-530-1607 ·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가지런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쉬어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